

# 여야 '쟁점법안' 장외 홍보전 뜨겁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차 입법 전쟁을 앞두고 여야간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홍보전이 치열하다.

신문법·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론의 우위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나리당=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서 온·오프라인 전방위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한나리당은 지난 16일 광주시 테크노파크에서 정책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엔 강원·경북, 22일엔 제주에서 설명회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한·미 FTA 비준안 등의 법안 추진 배경과 법 통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전에 전국을 지나방식으로 모두 돌아, 구진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의 정보고화를 통해 법안 설명을 충분히 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일일이 담당 국회의원을 배정해 '맨투맨' 밀착 마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한나리당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당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벌어졌던 야당 의원들의 폭력 영상과 쟁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당원 500여명이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옆 삼복서점 앞에서 열린 'MB악법 저지 광주·전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나라 20일 강원·경북, 22일 제주 순회 설명회

## 민주당 18일 광주서 MB악법 저지 결의대회 가져

법안 설명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와 팬카페 등에 게시토록 해 연휴 기간 네 티즌도 공략할 방침이다.

◇민주당=당세가 취약한 만큼 여론전에서의 우위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베풀독이어서 당력을 총 동원, 설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옆 삼복서점 앞에서 'MB악법 저지 광주·전남 결의대회'를 갖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김동철·주승용·조영택·강기정·김재균·이용섭·박지원·서갑원·이낙연·

유선희·김영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가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은 방송장악 법이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며 "2월 국회에 상정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방송 장악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광주·전남 언론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MBC 문제에 이어 KBS에도 기름을 부은 것은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독일 전차부대처럼 밀어붙여서 언론관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자유와 기본 인권을 거스리는 법안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들에게 설연휴 전까지 자신의 지역구 외에 지역 위원장이 원외인 지역위원회 2곳씩을 추가로 맡아 '밀착 귀향 활동'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의원들은 당원 간 담회나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육성 증언할 예정이다.

또 거리 선전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특별 당보도 제작한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9일 인천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갖고 당의 민생정책을 홍보에 이어 23일께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귀향객들을 상대로 선전물을 나눠주며 선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출신 한나라 의원 활약 돌보여

임두성, 국회 입법 발의 1위

이정현, 지역 예산 확보 온힘



임두성 의원 이정현 의원

광주·전남지역 뜻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은 임두성(해남), 이정현(곡성) 의원의 활약이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임 의원의 경우 18대 국회 들어 법안 발의 건수가 전체 의원 299명 중 실질적인 1위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총 215건을 대표 발의해 표면적으로는 1위이나 이 중 202건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300여건의 양벌규정 개정안 일 뿐 개인적으로 발의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또 2~5위는 규제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113건), 김종률 민주당 의원(98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93건)과 위원장인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92건)이 차지했으나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1월 300여건의 양벌규정을 철회하고 규제개혁특위로 넘기면서 특위 간 사들과 위원장 명의로 재발의 된 것이다.

그 동안 한달 평균 100만원 수준에 그쳤던 후원금이 12월에는 수천만원이 넘었으며 이것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광주·전남지역의 소액 기부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당 때부터 함께한 여러분이 진정한 동지"

### 추 대통령 '광주·전남 정책설명회' 방문 격려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먼저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깊은 대통령에게는 민주당 덕발에서 고군분투하는 광주·전남 지역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16일 오후 광주·전남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한나라당 광주·전남 지역 정책설명회'장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했다.

김태우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광주 R&D 특구, 로봇가전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생활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광주시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월

## 새 인물이냐 거물급이냐

### 전주 완산갑·덕진 등 노장들 출마 의사

### 민주 4월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 골머리

'분'이 충돌하면서 당내 분란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의 흥그라운드인 호남만 하더라도 전주 완산갑의 경우 4선 출신의 장영달 전 의원이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더해 최근 복당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과 정균환 전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대곤 전 전북 정무부지사,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도 출마 제비를 갖추고 있다.

전주 덕진예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인 가운데 체수찬 전 의원, 신간 전 국가정보원장, 진봉현 변호사, 임수진 전 진안군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일단 당 안팎에선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개혁공신 여론이 적지 않다. 일부 인사에 대해선 '올드보이' 논란도 일 조짐이다.

또 정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대표 등 간판급 인사들이 승부처인 수도권에 출마해주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 '공천=당선'으로 통하는 덩발 일수록 엄격한 자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